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영과 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up>37</sup>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sup>38</sup>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sup>39</sup>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sup>40</sup>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7-4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3**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을 천국에서는 신성한 진리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이 신적 진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의 신적 사랑에서 나와 천국 안으로 흘러듭니다. 신적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신적 진리는 마치 이 세상 해의 열(불)과 거기서 나오는 빛처럼 서로 연관됩니다. 이때 사랑은 해의 열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진리는 해의 빛에 각각 상응(相應, *correspondence*)합니다. 더 나아가 상응에 의해, 불은 사랑을, 빛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로. 이제 주님의 신적 사랑에서 나오는 신적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데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적 진리와 결합한 신적 선이며, 그 결합을 통해 천국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봄과 여름, 세상 해의 열이 빛과 결합(융합)하여 지상 만물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우안(右眼) 사정상 당분간 어떤 아케이나(*arcana*, 秘義) 본문을 정해 거기 설명을 곁들이는 형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스페덴보리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책 3장, ‘천국에서 주님의 신성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In Heaven the Divine of the Lord Is Love to Him and Charity toward the Neighbor)를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2)’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열이 빛과 융합하지 않으면, 즉 차가운 빛이 되면, 그때는 만물이 쇠잔하여 죽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있어서, 열에 비유되는 이 신적 선은 사랑의 선입니다. 그리고 빛에 비유되는 신적 진리는 일종의 그릇, 용기(用器)인데, 사랑의 선이 그 안에 담겨 밖으로 나오는 용기입니다. 선을 실어나르는 일종의 캐리어이지요.

※ 천국과 이 세상은 서로 상응한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잘 관찰하면 천국의 어떠함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은 해의 열과 빛으로 생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햇별이 해의 열과 빛의 융합인 것처럼 주님의 신성 또한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선과 진리의 결합이라는, 그리고 신적 진리란 신적 선이 담긴 일종의 그릇이라는 설명이 참 와닿습니다.

※ 방금 설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잘 관찰하면’이라 하였는데, 이 세상 관찰 때 ‘주님 사랑’(Love to the Lord)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찰자의 내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 사람의 내면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일층천, 이층천, 삼층천과 상응하며, 단계가 열릴수록 각 천국에 해당하는 시야와 지혜가 더 높고 깊어집니다.

14 천국에 충만한, 천국을 이루는 신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적 결합(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천사들은 주님과 결합하며, 또 서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한 천사들이 주님의 시야로는 모두 다 하나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랑은 모든 사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 사랑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가장 내적 활력은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따뜻해지지만, 사랑이 없으면 차가워지며, 완전히 빼앗기면 그때는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랑의 퀄리티에 따라 자기가 가진 생명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 사랑이 본질이신 주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역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즉 우리 역시 사랑으로만 살 수 있게, 사랑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5 천국에는 두 종류의 구별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사랑(*love to the Lord*)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love toward the neighbor*)입니다. 가장 내적 천국, 곧 삼층천은 주님 사랑의 천국, 이층천, 곧 중간 천국은 이웃 사랑의 천국입니다. 이 두 사랑은 둘 다 주님에게서 나와 둘 다 천국을 이룹니다. 이 두 사랑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는 천국에서는 밝은 빛 가운데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는 흐릿하기만 합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며,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이웃을 개인적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를 사

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랑이 선과 진리가 구별되듯 구별되며, 선과 진리가 결합하듯 서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먼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서는 이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천국은 내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적이요, 개념적인 것들이 거기서는 밝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사랑’하면 뭐 추상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등으로 이해하지만 거기서는 그곳 시각, 곧 내적 시야로 밝히 본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장면을, 화면을, 작품을 보듯 말입니다.

※ 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설명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일대일 사랑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사랑하시지만, 위와 같은 착각(?)이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소유’ 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을 ‘주님께 가서 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선의 사람, 곧 사랑으로 선을 의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이웃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이웃을 개인적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설명 역시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웃과 그리 다정하게,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데 대한 무슨 죄책감 같은 것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웃과 이렇게 지내는 건 ‘진리를 사랑한’ 결과요, ‘진리를 의도하고 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여 주님의 진리를 의도하고 행한다면 그 결과, 우리의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설명하고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이웃과 소원하게 지내는 우리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에 대한 면피성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위 15번 글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든 진리이든 그 대상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선도 행하고 진리에 힘썼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옳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선행도, 진리도 다 내가 한 줄로, 내가 잘나서 그러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천사들과 거듭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하길,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과 진리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또한 가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은 주님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선과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여 자기의 삶이 되게 한 사람들은 주님을 닮으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이지요. 의도함이란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sup>21</sup>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sup>23</sup>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14:21, 23)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15:10)

※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천사들의 설명은 사랑에 대한 참으로 핵심을 찌르는 정의입니다. 이 설명에 대한 지상 버전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

2)이며, 이에 대한 적용은, 예를 들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부, 아침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

※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설명 또한 너무나 귀한 핵심입니다. 어제 준석 형제가 싱가포르 비행기 안에서 아이 있는 가정을 위해 기꺼이 통로 좌석을 양보, 불편을 감수하는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석 형제의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며, 그래서 그 선 안에 주님이 계셨고, 그래서 준석 형제는 사실은 주님을 선대한 것, 곧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17** 천국에서의 제 모든 경험 이 증명하는 사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과, 천사들을 감동하고 천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과 체어리티의 형상이며, 그들의 얼굴과 말과 생명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눈부신 사랑 가운데 그들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모든 천사와 영들은 자기에게서 나와 자기를 둘러싸는 생명의 영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적 구체(球體, *sphere*) 아우라가 있는데, 이것으로 그들의 사랑에 대한 애정의 퀄리티를 알 수 있으며, 때때로 아주 먼 데까지 그 아우라가 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애정과 그에 따른 사고의 생명, 혹은 사랑과 그에 따른 신앙의 생명에서 이들 아우라가 뿔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에게서 발산되는 아우라는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함께 한 사람들의 생명 가장 내적인 곳까지 감동을 줍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런 걸 지각했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에서 얻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저 세상 삶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따라 몸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반면,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몸을 임의로 돌려도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 세상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라는 게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방위 역시 이 세상과는 달리 그들의 얼굴 방향과 일치하도록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는 것은 천사들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 행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자신을 향해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저 세상 삶의 방위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국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과 체어리티의 형상이며, 그들의 얼굴과 말과 생명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눈부신 사랑 가운데 그들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 설명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천국 구성원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얼굴과 말, 생명 전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우라, 어떤 맑고 깨끗한, 따듯하고 참 다정다감, 애정 어린 기운이 늘 풍기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여들고 머무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 천국 주님의 신성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천국의 모든 것, 곧 평화, 지성, 지혜 및 행복을 담는 그릇이요, 수용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이들을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갈망하고, 찾고, 자연스럽게 들이킵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해 풍요롭고 완벽해지기를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인데요. 사랑은 마치 사람의 기억창고를 뒤지듯 찾아 자기와 조화되는 모든 것을 꺼내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 아래 모아놓고 정돈합니다. 자기 ‘안’에 두어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게 하고, 자기 ‘아래’ 두어 자기의 종이 될 수 있게 말이지요. 그러나 자기와 조화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내보냅니다. 사랑에는 자기와 조화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능력과, 진리와 결합하려는 갈망이 있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 때, 단순했던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려졌는데,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천사들의 지혜와 천국의 모든 복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오직 그것이 선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것이 그들의 생명에 심겼고,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선하고 진실한 것을 받을 능력이 전혀 없

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혐오하고 거부하며, 천국 입구, 천국의 흐름이 닿자마자 뛰쳐나와 자기와 같은 애정 안에 있는 지옥의 영들과 합류합니다. 천국적 사랑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기 어려워하며, 직접 알아보고 싶어 하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사랑의 상태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천국에 저항하는 요소들이 일시 잠재워진 다음, 천사들이 있는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적 행복들을 지각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이전 상태로 곧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무척 슬퍼했습니다. 또 다른 영들도 천국에 올라갔었는데, 더 높고, 더 내적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총명과 지혜가 더해져서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오는 사랑은 천국과 그 안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수용체라는 사실입니다.

※ ‘세상 살 때, 단순했던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려졌는데,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천사들의 지혜와 천국의 모든 복이

마22:37-40, HH.13-19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그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오직 그것이 선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것이 그들의 생명에 심졌고,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간증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이런 모든 복이 아무 장애 없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등의 지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천국 사랑의 간증을 들어보니 저들이 저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지혜가 허락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어집니다. 요한 또한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특별히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록을 쓸 수 있는 비밀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19**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는 모든 신적 진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주님 자신 친히 이 두 사랑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sup>37</sup>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sup>38</sup>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sup>39</sup>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sup>40</sup>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7-40)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 전체, 곧 모든 신적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시면 이 모든 내용이 참임을,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시게 됩니다. 이 원고를 빛을 구하시며 여러 번 읽어 부디 내면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8-21(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